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생태수도 순천에 통째로 옮겨왔나”

순천만정원박람회 개막식尹대통령 내외 참석 지역 현안 관련 각 부처 장관·대통령실 수석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참석해 행사 품격을 높인 가운데, 순천시 현안과 관련이 깊은 정부 부처 장관, 수석,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이목을 끌었다.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는 3월 31일 오전 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를 배경으로 봄꽃이 만발한 동천 위 수상 무대에서 정원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막식의 최대의 화두는 윤석열 대통령 참석 여부였다. 오늘 윤 대통령 내외의 참

석은 올해 2월 국회 방문에서 여야를 넘나들며 각 지도부를 적극 초대하는 등 대통령 참석에 공을 들인 노관규 순천시장의 정성이 빛을 발한 결과로 풀이된다.

순천시 현안 사업과 관련 깊은 각 부처 장관도 눈에 띄었다. 지난 2월 순천에 방문해 경전선 도심 통과 문제를 확인하고 우회를 약속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동전에 추진될 명품하천 사업 관련 한화진 환경부장관 그리고 정원박람회 주무청인 남성현 산림청장이 참석했다.

또 정환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우동기 국

가균형발전위원장,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복 정부수석과 최상목 경제수석도 정원박람회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개막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개막식 공식 순서에 앞서 윤 대통령과 환담 시간을 갖고, 정원박람회 개요와 순천시 현안 사업을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막식 축사에서 “순천을 호남과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제대로 챙기겠다”고 밝히며 순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미래 도시의 표준을 제시하고 세계적인 생태수도로 도약할 순천시의 행보가 기대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고흥군, 공직자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과 청렴도 향상 기여



고흥군은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과 투명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부서장 및 승진자, 최근 임용된 새내기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공직자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3

월31일 밝혔다.

이번 부패방지 청렴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반부패·청렴 전문가인 박형준 과장과 이명호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공직자로서 꼭 알아야 할 '이해충돌방지법'과 ▲'고충민원 처리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조직 내 청렴 의식을 고취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고흥군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공영민 군수의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됐으며, 소속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지 않도록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비위·부정행위가 근절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교육의 장이 마련됐다.

공영민 군수는 “청렴한 공직사회와 건전한 조직문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당연시 되고 있는 만큼 공직자가 그간 미처 모르고 있던 직무 속의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향후 공직자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직자 스스로 청렴한 마음을 다잡고, 깨끗하고 엄정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기동채본부

보성군, 2023년 보성생명농업대학 입학식 개최 합격자 39명과 함께 오리엔테이션

보성군은 지난 3월29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23년 보성 생명 농업 대학 '토양 전문기반'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학식은 보성 생명 농업 대학 합격자 39명과 함께 오리엔테이션과 자치회 구성 및 1회차 교육을 실시했다.

2011년부터 추진 중인 보성 생명 농업 대학은 지역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 농업

인 육성을 목표로 '농특산물가공반', '딸기반', '과수전정반' 등을 개설해 지금까지 473명의 분야별 전문기를 육성했다. 이번 교육은 입학식을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총 17회 80시간에 걸쳐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토양의 전반적인 지식 습득 향상을 위한 이론교육과 토양 검정, 유기농자재 제조 및 선진지 견학 등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편성돼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다.

보성=김명순 기자

광양시가족센터, 아이돌보미 법정 의무교육 실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개인정보교육 등

광양시가족센터는 3월27일 아이돌보미 77명 대상으로 2023년 '행복한 광양시 아이돌보미' 법정 의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보미 법정 의무교육은 법률에 따라 아이돌보미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서 아이돌보미 업종에 특화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퇴직연금 교육 등을 총 4시간 동안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아이돌보미는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아이 돌봄이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임을 다시 깨닫고, 특히 장애인은 내가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해야 하는 존재



임을 느꼈다”고 말했다.

순경화 센터장은 “맞벌이 가정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찾아 가는 아이돌보미가 이번 법정 의무교육 수료를 통해 기본 자질을 갖춰 돌봄서비스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현근 기자

여수시, 시청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열어

여수시는 지난 3월29일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여수시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재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

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김종기 부시장을 비롯해 노·사 각 대표위원 등 16명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중대재해 예방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23년 여수시청 중대재해 예방 종합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전보건 경영목표 변경 ▲전담조직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이행사항 점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등이 논의됐다.

여수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2022년 전남 최초 전담조직인 중대재해팀을 신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해 시민과 직원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여수=김현근 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